

꺼져 가는 어린 생명에 희망의 촛불을!

백혈병 앓고 있는 고경필 군, 가난으로 치료비 막막



◀32

거리엔 어느새 캐럴이 울리고, 며칠 전엔 첫 눈도 내렸다. 모든 사람들에게 캐럴처럼 흥겹고, 눈 덮인 세상처럼 깨끗하고 고운 일만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세상사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다. 점점 추워지는 이 겨울에, 병실 침대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난치병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경필이, 설상가상으로 돈이 없어 치료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 아이에게는 신나는 캐럴, 크리스마스,

하얀 눈 같은 것은 감정의 사치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전북 장수군 장수 계남 초등학교 4학년인 경필이(10)도 얼마 전까지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명랑하고 씩씩한 학생이었다. 경필이에게 닥친 첫 번째 고통은 2년 전 부모님의 사업 부도로 가정의 파탄지경에 놓인 것.

경필이와 여동생 라영이를 외조부(변삼석·59)댁에 맡긴 부모님은 어디론가 피신해 연락이 끊긴지 오래다.

경필이의 두 번째 고통은 지

난 9월 29일에 시작되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라북도지부가 이 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리 검사에서 경필이는 적혈구 용적률·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낮은 반면 백혈구 수치는 그 결과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건협 전북지부는 10월 27일 2차 정밀 검사를 실시한 후 경필이를 바로 전북대 부속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서 골수 검사 등을 받은 경필이의 병명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그리고 경필이는 현재 입원해 있는 서울 여의도 성모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경필이는 앞으로 1년여에 걸친 치료를 받은 후 반드시 골수를 이식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안 소요될 많은 치료비를 구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입원비가 없어 응급실에서 이들을 보낸 후에야 어느 독지가의 도움으로

겨우 입원할 수 있었던 경필이에게는 앞으로도 입원비와 치료비, 2차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까지 5천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 필요하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경필이 형제까지 맡은 외가댁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엄청난 돈이다.

한편 경필이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계남초등학교 4학년 17명 어린이들은 친구를 돕기 위해 모금 운동에 나섰고 전 교생과 교사들이 힘을 모아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학교 운영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도움도 요청했고, 장수 교육청을 비롯한 관내 학교까지도 경필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손길을 모아 주고 있다. 경필이의 이상을 최초로 발견한 건협 전북지부 직원들도 작은 정성을 모아 경필이에게 전달했다.



▲건협 전북지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박철동 사무국장이 전달

그러나 이들만의 노력으로 엄청난 치료비를 모두 마련하기는 역부족. 우리 모두가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할 때가 되었다. 큰 돈이 아니라도 좋다. 단 돈 백원, 천 원이 모여 경필이의 건강을 되찾아 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멋지고 훌륭하고 보람된 일은 없을 것이다.

“제발 우리 친구 경필이를 살려주세요.”


“꺼져가는 어린 생명에 희망의 촛불을 당겨 주세요.”

“밝고 공부도 잘하는 경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창 뛰어 놀 나이에 몹쓸 병에 걸려 사투를 벌이는 경필이가 너무나 안스럽습니다. 해맑은 모습으로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뜻있는 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간절합니다.”

고통 당하는 이들의 심자기를

대신 지기 위해 세상에 왔다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시간에도 경필이의 고통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경필이의 힘겨운 투병 생활은 그보다 더 길게 계속 될 것이다.

모두에게 희망으로 다가오는 2천년이 경필이에게도 기쁨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보면 어떨까. 

경필이의 웃음과 건강을 되찾아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경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장수 계남초등학교 (0656-352-0909, 0914)

성금계좌 : 농협 507063-51-010225

예금주 : 장수계남초등